

장애 대학생과 친구되기(Buddy)에 대한 비장애대학생 태도에 관한 연구 :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윤 현 숙*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부교수

전 병 진**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A 대학 219의 비장애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대학생과 친구되기(buddy)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설문내용은 친구되기, 도우미 참여의지, 학과에 장애학생 입학 허용정도, 사회적 거리감, 심리적 변인인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방법은 구글(Google)의 문서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회수율은 24.3%, 분석 자료는 총 219사례였다. 연구 결과 장애특별전형을 실시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친구되기에서 특별전형 실시학과가 비실시학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 < .000$), 사회적 거리감에서 특별전형 실시학과가 비실시학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 도우미 제도 참여의지에서 특별전형 실시학과가 비실시학과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 < .000$), 학과 입학 선호도는 특별전형 실시학과가 비실시학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대학생과 친구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거리감과 도우미 제도 참여의지 정도, 학과 장애학생 입학 허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대학생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장애대학생과 친구되기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친구되기 프로그램, 비장애대학생, 장애친화적 캠퍼스

* 제1저자(sclinic@konyang.ac.kr)

** 교신저자(nomadot@kangwon.ac.kr)

1. 서론

장애대학생 특례입학제도의 성과로 장애대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박은혜 외, 2011; 이미선 외, 2012).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권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 왔다(김동일, 손지영, 2009; 김동일 외, 2009; 김용욱, 김남진, 박정란, 2008; 김정진, 2004; 이경림, 박재국, 2007; 이경준, 2008; 이근용, 유명해, 2009; 최민숙, 김성애, 박은혜, 2002). 특히 국무총리실에서는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3차에 걸쳐 ‘장애학생 교육 및 복지실태 조사’의 토대가 되었다(국립특수교육원, 2012). 이를 통하여 정부는 장애학생 입학에 관한 차별금지,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교육 콘텐츠 보완, 시설-설비 영역의 접근성 보완 및 각종 편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이끌었다(이미선 외, 2012). 이러한 과정은 정부의 장애학생 고등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강조하는 고등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로 이어졌다. 또한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생애적인 학습권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근거가 되었다(윤현숙, 전병진, 2012; 이경준, 2008; 이미선 외, 2012).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 대학생의 28.3%가 학사경고, 휴학, 자퇴 등의 중도탈락률을 보이며,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이 대두 되었다(최민숙, 김성애, 박은혜, 2002). 이경림과 박재국(2007)의 연구에서도 장애 대학생들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인 갈등과 함께 대학생활의 적응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전공분야의 학업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학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윤현숙, 전병진, 2012). 대부분의 일상적인 대학 생활은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박은혜 외, 2011). 따라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학교에서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기 성인기의 경험을 하게 되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장애인고등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장애 친화적 캠퍼스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박은혜 외, 2011; 윤현숙, 전병진, 2011; 이미선 외, 2012). 장애 친화적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윤현숙, 전병진, 2012). 특히 구성원 중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 관계는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각종 제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ll & McGregor, 2000).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은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이들의 학업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Tincani, 2004).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수진, 2006; Schneider & Ward, 2003)은 장애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제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어지는 지원의 수준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장애대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문주영, 2013).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를 위해서는, 장애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시혜적 차원의 일방적인 지지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이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장애 친화적 대학을 개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국제연합은 지역사회중심재활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개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재활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를 새롭게 건설하는 과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강명근, 2009).

장애대학생의 경우, 사회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데 대학에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건강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구성희, 2010). 하지만 우리사회의 장애대학생은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대학생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문영주, 2013).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친구되기(buddy) 같은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친구되기(Buddy)는 장애친화적 대학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대학생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비장애 대학생과 동등한 입장에서대학생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비장애 대학생이 장애 대학생들을 위해 희생하는 시혜적 차원의 일방적인 자원봉사가 아니라, 장애 학생의 욕구와 비장애 학생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공동체 문화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친구되기(Buddy)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비장애 대학생이 장애 대학생과 친구되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성공적인 장애친화적 대학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A대학의 6개 전공 학과에 재학 중인 219명의 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특례입학을 시행하는 학과는 60.7%로 중등특수교육과 27명, 유아교육과 25명, 작업치료학과 56명, 물리치료학과 25명으로 구성되었고 특례입학을 시행하지 않는 학과는 39.3%로 경영학과 27명, IT공학과 59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성별은 여성이 131명으로 59.8%였고 남성이 88명으로 40.2%였다. 학년별 인원은 1학년이 120명으로 54.8%이고 2학년이 31명으로 14.2%이며, 3학년이 33명으로 15.1%, 4학년이 35명으로 16.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이의 분포는 20세 미만이 163명으로 74.4%이고 20세 이상은 56명으로 25.6%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19.16세였다(표 1).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219)

변수		빈도	퍼센트		
전공학과	특례입학시행학과	중등교육	27	12.30	
		유아교육	25	11.40	
		작업치료	56	25.60	
		물리치료	25	11.40	
	특례입학미시행학과	경영	27	12.40	
		IT공학	59	26.90	
		성별	여성	131	59.80
			남성	88	40.20
학년	1학년	120	54.80		
	2학년	31	14.20		
	3학년	33	15.10		
	4학년	35	16.00		
나이	20세 미만	163	74.40		
	20세 이상	56	25.6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전환교육을 전공하는 교수 1인과 작업치료학과에서 사회 참여를 전공한 교수 1인이 개발하였다. 장애친화적 대학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장기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학생과 친구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설문조사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친구되기 5문항, 도우미 제도 참여 5문항, 전공학과 장애학생 입학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문항이 최종적으로

11문항으로 축소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은 사교회전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아이젠 값은 1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최종 선정된 문항의 요인 부하값과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즉, 요인 1은 친구 되기(Buddy)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이고 요인 2는 도우미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요인 3은 전공학과에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것에 대한 태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문항의 요인분석 및 신뢰계수 (N=219)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신뢰계수
1 나는 장애대학생과 친구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한다.	.929	.416	.498	.965
2 나는 장애대학생과 함께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하고자 한다.	.922	.433	.469	
3 나는 장애대학생과 여가 활동을 함께 하고자 한다.	.952	.431	.438	
4 나는 장애대학생과 문화 활동에 함께 하고자 한다.	.951	.407	.446	
5 나는 장애대학생과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	.929	.379	.436	
6 나는 장애대학생 학사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한다.	.472	.396	.986	.979
7 나는 장애대학생 생활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한다.	.477	.422	.984	
8 장애대학생이 우리학과에서 수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	.494	.811	.436	.850
9 장애대학생이 우리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하기에 적절하다.	.485	.812	.424	
10 현재 장애대학생이 학과 전공 수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	.407	.854	.271	
11 현재 장애대학생은 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있다.	.449	.879	.317	

1) 친구 되기 프로그램 참여 태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친구 되기(Buddy) 프로그램 참여 태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내용은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친구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와 앞으로 장애대학생과 동아리(소모임), 여가, 문화, 취미 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적 신뢰계수는 Cronbach's α 값이 0.965였다.

2) 장애대학생에 대한 태도

첫째,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사 도우미와 생활 도우미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 의지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내적 신뢰계수는 Cronbach's α 값이 0.979이었다. 둘째, 비장애 학생 본인의 전공에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것에 대한 태도로 수업 수행에 대한 2문항, 졸업 후 취업 문항, 팀 과제 수행에 대한 문항으로 총 4문항이다. 문항의 내적 신뢰계수는 Cronbach's α 값이 0.850이었다. 전체적으

로 각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의 문항 내적 신뢰도는 높게 분석되었다.

3) 사회적 거리감

Laumann(1965)은 사회적 거리감을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병진(2003)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 내적신뢰도는 0.56~0.87이었다. 총 문항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거트만척도(Guttman's scale)로서 1점은 사회적 거리감이 매우 높으며, 5점은 사회적 거리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신뢰도 계수가 0.83이었다.

4)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대인관계와 자아 존중감을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평소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인 특성이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검정변수로 사용하였다(Antonak & Linveh, 2000).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강문희, 이광자, 박경(2003)에 의해서 개발된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적신뢰도계수가 0.746이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등 자기 존중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신웅철 외(1997)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0점에서 최대 40점까지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이들 문항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13이었다.

3. 연구 진행과정

연구의 진행은 장애친화적 대학을 구축하고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교내 연구로 진행되었다. 2012년 10월 한 달 동안 Google의 문서도구를 활용하여 장애대학생과 친구되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문항의 개발은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 2인과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또한 문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파일럿(pilot)연구를 진행하여 문항을 최종 수정하였다. A대학에서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장애대학생이 재학하는 4개 학과와 비실시학과 2개 학과의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연구자가 컴퓨터상에서 직접 입력하였다. 회수율은 24.3%로 최종 분석에는 총

219부가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15.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학생특별전형 실시 여부에 따른 장애대학생에 대한 태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종적인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친구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친구되기(Buddy)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

비장애 대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친구되기는 평균 3.311이고 사회적 거리감은 3.451이었다. 그리고 도우미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2.916이며, 자신의 학과에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는 3.400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3.530으로 분석되었고 대인관계에서는 4.215로 분석되어 자아존중감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다(표 3).

<표 3>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 (N=219)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buddy) 되기	1	5	3.311	0.843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2	5	3.451	0.774
	도우미 참여의지	1	5	2.916	1.072
	학과입학_의견	2	5	3.400	0.713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1	5	3.530	0.751
	대인관계	1	5	4.215	0.692

2. 친구되기(Buddy)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특례입학학과에 따른 장애 학생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의 평균차이 검증

특례입학 학과에 따른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친구되기는 특례입학학과(3.565±0.815)가 비특례입학학과(2.918±0.71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에서 특례입학학과(3.697±0.718)가 비특례입학학과(3.069±0.71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도우미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에서 특례입학학과(3.139±1.057)가 비특례입학학과(2.569±0.98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학과에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것에 대하여 특례입학학과(3.574±0.785)가 비특례입학학과(3.130±0.46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아존중감에서 특례입학학과(3.679±0.760)가 비특례입학학과(3.298±0.66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대인관계 능력에서 특례입학학과(4.313±0.609)가 비특례입학학과(4.062±0.76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특례입학학과(18.950±1.350)가 비특례입학학과(19.500±1.82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표 4〉 특례입학학과와 비특례입학학과에 대한 장애 학생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의 평균차이 검증 (N=219)

	특례입학학과(N=133)		비특례입학학과(N=86)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구되기	3.565	0.815	2.918	0.718	6.169***
사회적 거리감	3.697	0.718	3.069	0.716	6.373***
도우미 참여의지	3.139	1.057	2.569	0.989	3.990***
학과입학_의견	3.574	0.785	3.130	0.460	5.273***
자아존중감	3.679	0.760	3.298	0.668	3.791***
대인관계	4.313	0.609	4.062	0.768	2.558*
나이	18.950	1.350	19.500	1.820	-2.421*

* $p < 0.05$, ** $p < 0.01$, *** $p < 0.001$

- 1) 특례입학 실시- 중등특수교육, 유아교육, 물리치료, 작업치료학과
- 2) 특례입학 미실시- 경영학과, IT 공학과

3. 친구되기(Buddy)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심리적 특성 변수간의 상관관계

최종 인과성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친구되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감(0.66), 도우미 참여의지(0.55), 학과입학 의견(0.56), 자아존중감(0.24), 대인관계(0.16), 특례입학학과(0.38)에서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별(-0.20)은 부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는 친구되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독립변수들의 상관성은 도우미 참여의지와 대인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변수들에서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하지만 성별은 부적인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고 나이는 성별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지만 나머지 변수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특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N=219)

	친구되기	사회적 거리감	도우미 참여의지	학과입학 _의견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학과_특례	성별
사회적 거리감	.660**							
도우미 참여의지	.548**	.533**						
학과입학_의견	.557**	.483**	.410**					
자아존중감	.235**	.319**	.246**	.357**				
대인관계	.156*	.153*	.114	.237**	.561**			
학과_특례=1	.377***	.397***	.261***	.307***	.249***	.179**		
성별_남=1	-.202**	-.265**	-.176**	-.151*	-.060	-.180**	-.465***	
나이	-.089	-.018	-.038	-.049	.073	-.041	-.172*	.293***

* $p < 0.05$, ** $p < 0.01$, *** $p < 0.001$

4. 장애대학생과 친구되기(Buddy)에 대한 인과성 분석

비장애 또래 대학생이 장애대학생과 친구되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VIF)을 확인한 결과 최소 1.00에서부터 최대 1.69인 것으로 분석되어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양병화, 2007). 본 연구

의 모형은 사회적 거리감, 도우미 참여의지와 학과입학에 대한 태도, 심리적 특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1은 사회적 거리감(0.72)을 독립변수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 값인 F가 167.22로 9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에 대한 모형 설명력(R²)은 0.44로 분석되었다. 즉, 95% 신뢰수준에서 A대학 비장애 대학생은 사회적 거리감이 적을수록 친구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모형 2는 사회적 거리감(0.45)과 도우미 참여의지(0.17), 학과입학 의견(0.32)을 독립변수로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 값인 F가 84.30로 9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에 대한 모형 설명력(R²)은 0.54로 분석되었다. 즉, 95% 신뢰수준에서 A대학 비장애 대학생은 사회적 거리감이 적고, 도우미 참여 의지가 높고, 장애학생이 학과에 입학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적인 학생일수록 친구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심리적 경향이 친구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 3은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를 포함시켰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형 4에서는 특례입학 학과 여부,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과 나이를 통제변수로 최종 포함시켜 분석하였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 친구되기(Buddy)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N=219)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	B	B
사회적 거리감	.718***	.452***	.464***	.442***
도우미 참여의지		.170***	.173***	.171***
학과입학_의견		.316***	.328***	.312***
자아존중감			-.090	-.099
대인관계			.055	.054
학과_특례=1				.183
성별				.086
나이				-.026
상수	.834***	.183	.176	.705
F	167.219***	84.300***	50.910***	32.719***
R ²	.436	.542	.546	.556

*p<0.05, **p<0.01, ***p<0.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친 장애 캠퍼스 구축을 위하여, 장애특례입학 학과 학생과 일반전형 학과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친구되기, 사회적 거리감, 도우미 참여의지, 장애학생 입학에 대한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친구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친화적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비장애 또래 대학생이 장애대학생에 대한 태도를 장애학생 특별전형학과와 일반전형학과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학과에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학과의 학생들이 친 장애 성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대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한 윤현숙과 전병진(2012)의 연구에서 평소 장애 대학생과 접촉의 기회가 적은 직원일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장애인과 접촉기회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유승(2010)의 연구에서 장애대학생과 긍정적 접촉과 통합 경험을 촉진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또래 비장애 대학생과 장애 대학생이 함께 하는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서선진(2010)의 연구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차원의 적응유도(induction) 프로그램을 계획·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전환기의 장애학생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경립과 박재국(2007)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장애학생을 자주 접촉한 학생들은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 비하여 장애학생을 돕거나 학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학생에 대한 친구되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학생에 대한 노출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차원에서 특례입학을 일부 특정학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학과에 실시하여 대학 구성원이 장애 대학생을 동료로 인식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립특수교육원(2012)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평가의 선발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략과 일치한다. 따라서 장애친화적 대학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장애학생들의 입학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친구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거리감, 도우미 참여의지와 학과에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장애 대학생들이 장애인 집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한 김상학(2004)은 장애인에

대한 접촉의 경험이 적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정준수와 박미은(2013)이 대학생들이 지각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한 결과 자원봉사동아리 가입과 활동, 사회복지 전공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친구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에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전략으로 장애인과 접촉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장애인과의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며, 접촉했을 때의 친숙함(서미경, 김정남, 이민규, 2010)이나 긍정적인 인상(류승아, 2010)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대학생 수준의 문화 캠프 활동, 동아리 활동, MT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학생과의 친구되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도우미 참여 의지였다.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 주도의 2005년, 2008년, 2011년 3차에 걸친 장애학생 교육 및 복지지원 실태 평가를 통해 강화한 도우미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김미선(2011)의 연구에서 학습도우미와 생활도우미를 통해 비장애 학생의 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도우미가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되는 도우미 사업의 방향성을 교수-학습 지원과 더불어 생활도우미를 강화하며, 사회복지사 제도를 강화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함으로써 장애-비장애 학생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시적인 제도적 보완 못지않게 대학생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하게 되면 장애친화적 캠퍼스를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동일 외, 2009; 박은혜 외, 2011; DuChossois, Michales, 1994).

비장애 대학생 소속 학과에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평소에 장애학생과 함께 한 수업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친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지니기 위해서는 함께 수업을 받음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는 경험을 갖지 않도록 교수자의 철저한 수업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대안 평가 등의 특별 학점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비장애학생들에게 인식시킴으로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없애야 할 것이다(최민숙, 김성애, 박은혜, 2002). 서선진(2010)은 다각적으로 학업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학업지원 팀/센터를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법이 수업진행자와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수업 참여와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가 제공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함께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정동훈, 2011).

특정집단에 대한 태도나 편견연구에 있어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았던 감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인지적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해주는 변수로서 주목받고 있다(김상학, 2002). 기존의 연구에서 집단에 대한 태도는 각 집단에 대한 인지적 태도보다 감정적 태도 정도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어진다고 하였다(Jussim et al., 1995; Stangor, Sullivan, Ford, 1991).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 요인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이나 대인관계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최종 요약하면, 장애 친화적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대학생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고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전공 학과에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사 과정에서 장애학생을 배려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 대학생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장애친화적 캠퍼스를 구축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대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친구되기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들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은 장애친화적 캠퍼스 정책을 지향하는 장애학생 고등교육 발전방향과도 일치한다(박은혜 외, 2011).

하지만 본 연구는 한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장애학생과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성원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병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 장애 친화적 대학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비장애 학생의 태도를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근 (2009). **지역사회자원의 역할과 활용**. 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 자료집.
- 강문희, 이광자, 박 경 (2003). **인간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구성희 (2010). **공중보건학**. 서울: 고문사.
- 국립특수교육원 (2012). **제3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 장애인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천안: 국립특수교육원.
- 김동일, 손지영 (2009). 장애대학생 수업지원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과 지원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1), 85-112.
- 김동일, 손지영, 김희진, 강영아, 정소라 (2009). 장애대학생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의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8(4), 231-258.

- 김미선 (2011). 대학의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학생 도우미의 인식 보고. **특수교육**, 10(1), 187-207.
- 김상학 (2002).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적극적 조치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7(4), 169-206.
- 김용욱, 김남진, 광정란 (2008).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연구 I: 실태 및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2), 181-202.
- 김정진 (200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정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위한 학업지원 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지원교육모델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2), 97-124.
- 류승아 (2010). 정신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복귀는 가능한가?: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49-69.
- 문주영 (2013). 사회적 지지가 장애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은혜, 박재국, 신현기, 최성규, 최종근, 손지영, 최승숙, 채재은, 이효정, 박지연, 원성욱 (2011).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서미경, 김정남, 이민규 (2010).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친숙함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23-141.
- 서선진 (2010).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전환-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재활복지**, 14(1), 31-53.
- 신용철, 임은주, 광승웅, 정현주, 이기영, 박태진, 김병성 (1997). 환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건강의 관계. **대한가정의학회지**, 18(2), 136-146.
- 양병화 (2007).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유승 (2010).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특성화 대안학교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비교.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윤현숙, 전병진 (2011). 장애대학생의 직업캠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 10(2), 115-134.
- 윤현숙, 전병진 (2012).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교직원 태도에 관한 연구: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4), 261-281.
- 이경림, 박재국 (2007).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및 지원방안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연구**, 50(1), 1-20.
- 이경준 (2008). 장애인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책변화와 지원요인 탐색연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확대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24(3), 103-130.
- 이근용, 유명해 (2009). 발달장애인 고등교육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부모의 요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237-264.
- 이미선, 고윤자, 손지영, 윤현숙, 이동근, 이옥승, 하영근 (2012).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천안: 국립특수교육원.
- 이수진 (2006). 사회소속감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육연구**, 26(2), 117-128.
- 전병진 (2003).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 정동훈 (2011). 시각장애대학생의 보조공학 장치 및 서비스 만족도 연구. **재활복지**, 15(2), 129-146.
- 정준수, 박미은 (2013). 대학생들이 지각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재활복지**, 17(2), 253-277.
- 최민숙, 김성애, 박은혜 (2002). 장애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교수의 인식. **특수교육**, 1(1), 133-157.
- Antonak, R. E., & Linveh, H. (2000).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Illinois: Thomas books.
- DuChossois, G., & Michaelles, C. (1994). Postsecondary education. In C. A. Michaelles (Ed.), *Transition strategies for persons with learning disabilities* (pp. 79-117). San Diego: Singular.
- Hall, L. J., & McGregor, J. A. (2000). A follow-up study of the peer relationship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n inclusive school.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4(3), 114-125.
- Jussim, L., Nelson, T. E., Manis, M., & Soffin, S. (1995). Prejudice stereotypes and labeling effects: Source of bia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28-246.
- Laumann, F. O. (1965). Subjective social distance and urban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1), 26-36.
- Schneider, M. E., & Ward, D. J. (2003). The role of ethnic identifica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Latinos' adjustment to colleg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5, 539-554.
- Stangor, C., Sullivan, L. A., & Ford, T. E.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 59-80.
- Tincani, M. (2004). Improving outcome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llege Teaching*, 52(4), 128-132.

A Decisive Factors on the Attitude for the Buddy between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 Case of A University

Yoon, Hyeon Sook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Konyang University

Jeon, Byoungjin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disability friendly campus through verifying the decisive factors on the attitude for the buddy between university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the becoming buddy, helper participant level, degree of disability in the admission department allowed, social distance, interpersonal and self-esteems, total 20 items. Data collection was Google word tools, returned 24.3%, final analysis data were 219 cases. Results,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special admission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howed that the with group was higher than the without in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the becoming buddy ($p < .000$), the helper participant level ($p < .000$), the social distance ($p < .000$), degree of disability in the admission department allowed ($p < .000$). Lastly, investigation of the causality of becoming buddy revealed that the social distance and helper participant level, degree of disability in the admission department allowed were influential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on the social distance between non-disabled college students and disabled college students to make narrow, improving awareness of disabled people, will disability friendly campus build.

Key Words : Non-disabled college students, Disabled college students, Disability friendly campus, Buddy program

논문 접수: 2013. 08. 05 심사 시작: 2013. 08. 09 게재 확정: 2013. 09. 23